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카드

[인문]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번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국제 협약, 기본권, 공공재, 공동선, 공리주의, 생태주의, 자율과 규제	
예상 소요 시간	[문항 1] 70분, [문항 2] 5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지를,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제 협력으로서 교토의정서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파리기후협약과 같이 참여 당사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설정과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이행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기후 변화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글 자료는 두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탄소배출의 확산성과 비가역성에 따른 기후 위기의 심각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 협력의 한계, 공공재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무임승차의 문제점,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전체 이익 극대화, 이타적 생명애를 토대로 한 기후 위기 극복, 코로나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강제적 규제의 필요성 등에 관련된 제시문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반론하는 데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제는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인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식별하고, 그 유형의 특징을 주어진 자료를 활용·분석한 뒤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제를

위해 각 유형에 속한 사람의 환경관심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의 해결 능력에 관한 불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각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기후불안,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및 지구생명 지수의 변화,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의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각 유형의 특징과 관련 정책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논제와 제시문은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p>■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p> <p>■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p>
	<p>■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p> <p>■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p>
	<p>■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p> <p>■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p>
	<p>□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p> <p>□ 한국사</p>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3	[10국03-04] 쓰기맥락을 고려하여 쓰기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공통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공통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가)~(마)
성취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마)
성취기준 3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가)~(마)
성취기준 4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마)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미,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다), (마)
성취기준 2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가)~(마)
성취기준 3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라)~(마)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성취기준 2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마)
성취기준 3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마)
성취기준 4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가)~(마)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가)~(나), (라)~(마), (자료 1)~(자료 3)
성취기준 2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가), (라), (자료 1)~(자료 3)
성취기준 3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가), (라)~(마)
성취기준 4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가), (나), (마)
성취기준 5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마)
성취기준 6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가), (마)
성취기준 7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가), (라), (자료 1)~(자료 3)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나), (라), (자료 1)~(자료 3)
성취기준 2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가)~(나), (라)~(마), (자료 1)~(자료 3)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마)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가)~(마)
성취기준 2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마)
성취기준 3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가), (라), (마)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8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18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	2018	164-207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19	112-121,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30-179	공통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40-63	공통	○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34-137	공통	○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19	28-29	(라)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96-100	(라)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9	154-171	공통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12-14, 94-95, 124-125	(가)~(마)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4-25, 92-93, 308-309	(가)~(마)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	2018	17, 27, 56, 62, 98, 106, 139, 215	(다)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8	28, 35, 91, 95, 139-141	(가), (다), (라)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8	26, 50, 60, 95, 99-100, 107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8, 101-111	(나), (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9	176-179	(가)~(마)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9	185-190	(가)~(마)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19	15, 115, 142, 142-146	(나), (다), (마)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96, 142, 151, 179	(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9	119, 139, 148-150, 171	(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9	148	(다)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42-45, 52-59, 135	(나), (자료 1) ~ (자료 3)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62-69, 144	(가), (나), (자료 1) ~ (자료 3)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8	143, 264-266	(나)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54-61, 62-69, 184-189, 286, 292-293	(가), (다), (라)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37, 140, 176, 48-55, 175-181	(나), (다), (라), (마)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9	81-88	(나), (자료 1) ~ (자료 3)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71-72	(나)	○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19	81	(나)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82-91	(나), (자료 1) ~ (자료 3)	○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	2019	30-39	(마)	○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9	34-43	(마)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202-203	(가) ~ (마)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9	197-203	(가) ~ (마)	○

2)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탄소 시장	황석태	OJERI BOOKS	2022	219-220, 251-271	(가)	○
기후 시민	지식채널 [©] 제작팀	EBS BOOKS	2023	99-103	(가), (라)	○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이노우네 토시히코 외	사계절	2004	186-199	(라)	○
마스크 파노라마	현재환 외	문학과지성사	2022	42-63	(마)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 (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과 같은 두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쟁이라는 논제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교토의정서가 탄소배출 감축량을 탄소배출에 책임이 큰 선진국에 한정하여 강제한 반면,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탄소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탄소 감축 이행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탄소 감축을 획기적으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한 자율적 이행과 강제적 규제 사이에서 더욱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제의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수험자가 두 방안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는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재가 필수적이거나 이기심 등의 동기로 인해 공공재 공급에 협조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 협조를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지구의 정상적 기후를 보전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소를 자율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자율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밀에 따르면 개인의 상황은 개인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때 최선의 선택을 내릴 것이고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 주장을 근거로 각 국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국가 자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강제하지 말고 국가 스스로 해당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논증할 수 있다. 기후 위기가 더욱 명백해진 상황에서 탄소배출 감축 이행을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 각 국가는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을 것이다.

제시문 (라)는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지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시했다.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효율적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재생 프로젝트로 일본 나오시마섬의 새로운 변화를 예로 들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익과 편의보다 자연환경의 복원 및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재야생화 프로젝트로 독일의 에칸페르데시의 환경 정책과 그 실천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두 프로젝트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간적·금전적 희생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제시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때 각 사회 시민들의 자발적 또는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코로나 발발 상황에서 서구와 우리나라가 취한 강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서구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지만,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기본권 제한을 강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의 전산화 등을 강제 시행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및 강제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기후 위기 시대의 국민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거나 긴급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강제적 조치가 필수적임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항 2]는 수험자가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두 부류인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 중 하나를 선택해 (자료 1)에서 제시된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 유형의 사람들을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참여시킬 방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수험자의 자료해석 능력과 분석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 1)은 (가)와 (나) 두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을 <그림 1>에,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그림 2>에 제시했다. 여기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나) 유형을,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가) 유형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나) 유형은 환경관심도가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과학기술로는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신뢰와 비관적 미래인식을 보이는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특징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 유형은 환경관심도가 낮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낮은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특징과 일치한다. 또한 (가) 유형은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정도가 낮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높는데, 이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이 과학기술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 높은 과학기술 신뢰성과 긍정적 미래 인식을 가지는 특징과도 일치한다.

(자료 2)에는 두 유형의 비중이 각각 높아질 때 기후불안 정도,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지구생명 지수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림 3>에서는 (나)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후불안 정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져도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 따르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는 (나) 유형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낮은 값을 유지하지만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5>에서 지구생명 지수는 (나) 유형의 비중과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자료 1)과 종합했을 때,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는 기후불안 정도는 높아지지만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변함없이 낮고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는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지만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며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자료 3)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두 방안의 효과가 (가) 유형과 (나) 유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그림 6>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A 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나) 유형은 크게 증가했지만 (가) 유형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그림 7>에 따르면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하는 B 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나) 유형은 변화가 없었지만 (가) 유형은 크게 증가했다. 이를 (자료 1)과 종합했을 때,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A 방안을,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B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선택한 입장	강제적 규제를 선택한다.	자율적 이행을 선택한다.	배점
■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요약			
입장 선택	- 탄소배출 감축 참여 여부를 국제사회가 강제해야 함	- 탄소배출 감축 참여 여부를 국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	5점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자신의 주장 정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인 기후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음 •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강제로 규제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마)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임 • 코로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 상황에는 강제적 조치가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판단은 최선의 선택을 가져옴 • 각국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것임 - (라)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 이타적 생명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이행이 가능 	15점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제시			
주장 논거에 대한 예상 반박	강제적 규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자율적 이행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판단은 최선의 선택을 가져옴 • 각국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것임 - (라)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 이타적 생명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이행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인 기후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음 •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강제로 규제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마)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임 • 코로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 상황에는 강제적 조치가 효과적임 	15점
■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재반박	강제적 규제 주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자율적 이행 주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마)의 논거를 반복하여 이용하지 않고 (다), (라)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 혜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국가가 경제 발전에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함 • 이타적 생명애는 전 세계에 적용하기 어려움 • 개별 국가의 단기적 이익과 지구 전체의 장기적 이익이 불일치함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 10점 이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라)의 논거를 반복하여 이용하지 않고 (나), (마)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 협약으로는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긴급성을 이유로 감축 정책을 강제할 경우 각국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은 정부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것임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 10점 이하 부여 	15점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10점

[문항 2]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선택한 입장	기후 위기 비관론자	기후 위기 회의론자	배점
■ 유형 선택의 근거			
유형 선택의 근거 자료	- [자료 1]에서 (나)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유형은 <그림 1>에서 환경관심도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높음(5점) • (나) 유형은 <그림 2>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높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낮음(5점) ※ (가)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	- [자료 1]에서 (가)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유형은 <그림 1>에서 환경관심도 낮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낮음(5점) • (가) 유형은 <그림 2>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낮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높음(5점) ※ (나)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	10점
■ 선택한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			
그 사회 특징의 근거 자료	- [자료 2]의 (나) 유형 분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3>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불안 정도는 증가(5점) • <그림 4>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낮은 값 유지(5점) •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 ※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가)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	- [자료 2]의 (가) 유형 분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3>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불안 정도는 낮은 값 유지(5점) • <그림 4>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증가(5점) •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 ※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나)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	15점
■ 선택한 유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참여 유도 방안의 근거 자료	- [자료 3]의 A 방안 선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 선택(5점) •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경우 A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 ※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B 방안을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B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	- [자료 3]의 B 방안 선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 선택(5점) •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경우 B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 ※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A 방안을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A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	10점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5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5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총 10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감점

[문항 1]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문항 2]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7. 예시 답안

[문항 1] 예시 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 강제적 규제를 택한 경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강제적 방식을 지지한다.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릴 수 없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의 문제가 기후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축 여부를 각국의 자발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강제적 방식을 옹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코로나는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다.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 긴급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제적 조치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상화된 기후가 공공재적 성격, 특히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있다. 각국은 감축 참여와 무관하게 정상화된 기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특징으로 인해 각국은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할 수 있고 그 결과 인류는 감축에 실패할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

위 주장에 대해 혹자는 밀의 공리주의 사상을 언급하며 온난화의 위기가 더욱 확실해진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후 안정을 위해 스스로 탄소 감축에 참여할 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 재생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타적 생명애는 인류로 하여금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전 지구적 혜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타적 생명애를 통한 국지적인 환경 재생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적용하여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국제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백 포함 998자)

■ 자율적 이행을 택한 경우

자율적인 이행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게만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한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명령이나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참여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탄소배출 감축에서 각국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한다면 자국의 상황, 역량, 환경에 맞는 최선의 목표량과 효율적인 시행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기후 위기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타적 생명애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돌봄 능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연대와 환대를 발휘한다. 사람들이 자율성에 기초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 지구를 모두의 공동체적 환경으로 인식해 더욱 소중히 보전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나 대기의 공공재적 측면에 주목하여 자율적 이행을 통해서 모든 국가를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한 국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코로나 방역에서의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처럼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강제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처럼 자발성에 기반하지 않은 강제적인 탄소배출 감축 규제는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최선의 대안은 국가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기후 위기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자율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재난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강제적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국가의 고유한 주권도 제한될 수 있기에 자율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

(공백 포함 1,001자)

■ 기후 위기 비관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자료 1)의 (나)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그림 1>의 (나) 유형 역시 환경관심도가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이 높으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미래에 대한 인식도 비관적인데, 이는 <그림 2>의 (나) 유형에 나타난 특징과 일치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때, 사회 전반의 기후불안 정도가 높아지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변함없이 낮게 유지되며,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진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높아지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A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백 포함 600자)

■ 기후 위기 회의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자료 1)의 (가) 유형에 해당한다. (가) 유형은 <그림 1>에 따르면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이 낮으며, <그림 2>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정도가 낮고 미래 긍정 인식 정도는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가 가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낮은 심각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도 상응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체의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아지며, 지구생명 지수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B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백 포함 600자)